

전일동향

전일 대비 1.90원 상승한 1,508.90원에 마감

2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90원 상승한 1,508.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60원 상승한 1,508.60원에 개장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순탄치 않은 데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며, 1,508.9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1.27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08.60	1512.40	1503.30	1508.90	1508.10
	엔화	942.75	947.31	940.63	941.27	-
	유로화	1736.82	1743.28	1734.15	1736.22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4	-3.08	-8.7	-16.8
	결제환율(수입)	0	-1.87	-6.62	-13.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중동발 강달러 충격 지속에...1,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08.90) 대비 0.50원 하락한 1,507.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발 강달러 충격 지속으로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미국과 이란의 접점 없는 대치가 이어지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발전소 공격 기한을 연기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란 핵관련 시설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은 공습 자제를 약속한 트럼프 발언에 위배된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가중되는 위험회피 심리로 인해 금일 환율은 추가 상방 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업체들의 달러 월말 매도물량이 유입될 경우 환율 상승폭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03.33 ~ 1513.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428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50원 ↓
	■ 美 다우지수 : 45166.64, -793.47p(-1.7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2.4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81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